

방송위원회 위원 임명장 수여식

우선 여러분 방송위원 취임을 축하합니다. 대단히 어려운 일이 많은 직책인데 맡아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방송위의 기능은 매우 중요합니다. 또 사회적 영향력도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자연히 영향력이 크다보니 국민들의 관심도 높고 임명 과정에서 이런저런 시비도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 갈등 있었지만 무난히 넘기고 임명장 드리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비판과 문제제기도 민주사회에 맞게 적절한 수준으로 조절되는 것이 필요

모두들 의견이 다를 수 있고 비판하는 것도 보장된 권리지만, 비판하고 문제제기하는 것도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고 헌법이나 법률에 정해져 있는 각자의 권한도 존중해서 의사표시하고, 비판을 표명하는 것도 민주주의 사회에 맞게 적절한 수준으로 조절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절제된 의사표시 같은 것이 필요합니다. 대통령이든 국회든 권한을 부여받은 것은 나름의 이유가 있어서 부여받은 것입니다. 비판도 받아야 하지만 존중도 받아야 합니다. 굳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내부에서도 이런 갈등이 있을 수 있게 돼 있는데, 이 과정에서도 서로를 존중하고 주어진 권한 범위 안에서 항상 합리적 결과를 내기 위해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추천이 어떤 경위를 거쳐서 됐는지 간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책임은 권한을 공정하게 행사하는 것입니다. 추천 과정을 분산한 것도 전체적인 균형을 취하기 위한 교육지책으로 생각합니다만, 한분 한분이 공정한 태도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또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췄으면 좋겠고요.

언론 일반의 책임에 대해 굳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 한국 사회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회 현실은 이미 방송과 통신을 구분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가버렸고 소비자도 구분 없이 접속하는데, 국가제도는 2가지로 나뉘어 있는 것이 현실에 안 맞는 것이라고 봐야 하겠습니다. 신속하게 해서 언론의 측면에서도 효율성 있게 가야 하지만 산업의 측면에서도 발전에 지장이 없도록 정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언론의 조직 이기주의 폐해 심각

제가 걱정하는 것은 방송위원이 되시더니 어쩐지 방송 이기주의 같은 경향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고 보면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죠. 당연한 일이지만 그것이 문제를 푸는데 어렵게 되는 경우도 있고, 요즘 그전에는 별로 보지 못했는데 방송사 이기주의 또는 직원 이기주의, 내지 노동조합 이기주의가 너무 중심이 되는 경우를 봅니다. 정부에 못지않은 사회적 기능을 하는 기관이 그런 경향 보이고 거기에 대해 마땅한 통제수단이 없습니다.

언론은 제도적으로 시민사회 영역에 속하는 권력이어서 함부로 정치권력이 개입할 수도 없고 시민사회의 통제도 어려운 애매한 권력입니다. 그러면서 영향력은 막강합니다. 언론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정부가 정책을

두 번 세 번 하거나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도 있고, 좌절을 겪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부와의 관계에서만 그렇겠지만, 정부 외에 일반 국민과 관계에서의 영향이 오죽하겠나 싶습니다.

거버넌스를 얘기하는데 분권화돼 있는 자율과 협상이 오늘날 사회 운영의 한 원리로 돼 있는데, 언론의 기능과 역할이 정말 크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조직 이기주의가 나타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각별히 관심 갖고 방송위가 부딪친 어려운 문제를 원활히 풀어 달라고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출발을 축하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